

# 완도 전복 신메뉴 출시...지역 상생 협력 프로젝트 결실 맺어

### CJ푸드빌 운영 브랜드 통해 완도 전복 활용 리조또·샐러드·파스타 등 선보여



완도 전복을 활용한 신메뉴가 CJ푸드빌이 운영하는 이탈리아 비스트로 '더플레이스'

를 통해 출시됐다.

완도 전복을 활용한 신메뉴는 크림 리조또에 버터로 구운 완도 전복을 올리고 전복 소스를 더해 감칠맛을 살린 리조또와 부드럽고 쫄깃한 식감의 완도 전복과 문어, 새우 등 다양한 해산물과 청포도, 레몬 비네거 드레싱이 어우러진 샐러드이다.

바질 페스토의 깊은 풍미와 고소한 치즈가 완도 전복과 조화를 이룬 '완도 전복 바질 페스토 파스타'도 선보였다.

이번 신메뉴 출시는 지난달 전라남도 완도군, 장성군, CJ푸드빌과 전복 소비 부진과 가격 하락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가의 소득 증대에 보탬이 되기 위한 업무 협약의 일환으로 이뤄졌다.

한편 CJ푸드빌 외식 브랜드인 빙스와 기타 매장에서도 완도 전복을 활용한 신메뉴가 지속적으로 출시될 예정이다.

또한 지난 4월 금산군과 '지역 특산물 공동 상품 개발 마케팅' 업무 협약 이후 '금산인삼·완도 전복 삼계탕'이 6월 말 출시될 예정이며, 온라인 플랫폼인 위메프에서 기획전을 진행할 계획이다.

완도 전복은 전국 생산량 대비 70% 이상을 차지하며, 맥반석과 초석으로 형성된 청정 해역에서 자라 비타민과 철분, 칼슘, 단백질 등이 풍부한 것은 물론 아르기닌이 많이 들어 있어 항산화 작용 및 면역 증진에도 좋아 '바다의 산삼'이라 불린다.

군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외식 기업과 간편식품 제조 기업과의 협업을 가장 간편식, 레스토랑 간편식 등 수산물 활용 상품을 개발하여 전복 소비 촉진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완도=기동취재본부



## 강진 마량항, 해양레저관광 시대 개막

### 바다낚시 어선 7척 출항식...1척당 年3600명 관광객 유치 효과 기대

강진군이 남해안 해양레저 거점도시 만들기 전략 가운데 하나로 꾸준히 추진해온 바다낚시 어선 유치가 드디어 첫 결실을 맺고 마량항에서 역사적인 출항식을 가졌다.

출항식은 22일, 강진원 강진군수를 비롯한 군의장, 군의원, 도의원, 마량면 기관·사회단체장, 낚시어선 관계자, 강진산단 입주기업인 SDN 관계자, 주민 등 모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이번 출항식은 타지역에 있는 바다낚시 어선 7척을 유치함으로써 정체되어 있는 강진군의 해양레저관광 산업을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시발점으로 삼아 남해안 해양레저관광도시로의 새로운 도약을 널리 알리는데 큰 의미가 있다.

바다낚시어선 유치는 강진군의 민선8기 60대 프로젝트 가운데 하나로, 지금까지 수산, 양식 등 1차 산업 위주의 어촌 경제를 3차 산업인 해양 레저 관광으로 전환해, 미래 먹거리를 먼저 준비한다는 전략에서 출발했다.

그동안 마량항에서는 일시적으로 바다낚시 어선이 운영된 적은 있지만, 장기적 혹은 정기적인 운영이 드물어 바다낚시 어선 활성화가 이뤄지지 않았다.

타지역에서 수년에서 길게는 수십년 동안 머물렀던 어선들은 생활 기반 및 선적항 이주로 인한 낚시객 모집, 새로운 낚시포인트 개발 등 모든 것을 새롭게 시작해야 하는 불확실성 속에서 선뜻 이전할 의지를 보이지 않아, 군은 삼고초려의 정성을 들여왔다.

이렇게 유치과정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주민, 지역사회, 공직자 등 모두가 헌신적으로 노력했기에 바다낚시 어선 유치가 가능할 수 있었다.

그동안 군에서는 바다낚시 어선 이전을 위해 지난해 강진원 군수의 녹동항 방문을 비롯해 완도항, 회진항, 서망항, 군산항 등 낚시꾼들에게 선호도가 높은 항구를 방문하고, 낚시어선협회회원 및 선장 등 다양한 관계자들을 만나 설득에 설득을 거듭해 왔다.

특히, 온화한 기후로 일년내내 낚시가 가능하고 대도시와 접근성이 쉬운 마량항의 이점을 홍보하는 한편, 바다낚시 어선 전용 부잔교 설치와 어선 사무실 설치 등 타지역과 차별되는 어선 친화 정책으로 선장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그 결과 고흥 녹동항, 장흥 회진항에서 마량항을 새로운 해양레저관광 거점으로 부흥시키겠다는 군의 의지에 전적으로 동감하며, 마량항으로 이전하는 쉽지 않은 결정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전한 낚시어선 중 녹동항에서 이전한 강진군 성천 출신의 최남수 선장은 "마량항으로 이전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결정이었다"며 "하지만 제가 선구자 역할을 해, 내 고향 강진이 해양레저관광 지역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일조하겠다는 신념으로 이전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바다낚시 어선 유치로 인한 인구유입 및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도 상당하다.

낚시 어선 종사자 인구 유입으로 인한 인구증대와 낚시어선 당일치기나 1박 2일 프로그램 체험을 통한 마량항 관광객 증가로 편의점, 식당, 낚시판매점 등 주변지역 상가 소득 증대로 이어짐으로써 지역경제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또한 군민 취미생활 제공이라는 이점을 더해 인구늘리기, 관광객 증가, 군민 취미생활 향상이라는 1석 3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군에서는 바다낚시 어선 1대 유치로 인한 지역경제 유발 효과는 연 7억 원, 관광객은 3,000여 명 이상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해양레저관광 거점도시의 쾌속질주를 위하여 5년내에 100척의 낚시어선 유치를 목표로 설정하였다.

이와 함께 군은 관내 낚시어선 수리 및 구입 등의 지원책을 펼쳐 관외 낚시어선의 이전과 동시에 관내 낚시어선의 활성화에도 힘을 예정이다.

강진=김영일기자

## 장흥군, '종이로 작성된 지적자료' 전산화 완료

장흥군은 최근 종이로 작성된 영구보존 지적자료의 전산화 사업을 완료하였다고 밝혔다.

지적자료 전산화 사업은 2022년 생산된 지적측량결과도 720매, 토지이동결의서 9,600매를 대상으로 했다.

군은 종이문서를 전산화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시스템에 탑재를 완료했다.

장흥군은 현재까지 일제강점기 토지조사사업 당시 작성된 지적원도, 임야세부원도, 지적(임야)도를 포함하여 토지대장(부책식, 카드식), 측량결과도, 토지이동결의서 등 중요 기록물 약 1,300,000매를 전산화 완료하였다.

영구보존문서의 전산화 구축을 통하여 각종 재난·재해 등으로 인한 문서의 훼손·멸실에 대한 복구자료 확보와 지적기록물 열람 및 확인 절차의 간소화를 통하여 군민에게 신속·정확한 지적행정 서비스 제공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장흥군 관계자는 "영구보존문서인 지적자료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군민 재산권 보호와 지적행정의 공신력을 제고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장흥=김도영기자

## 해남군 우수영~신안군 장산·신의도 뱃길 열린다

### 오늘부터 카페리 여객선 운항...섬주민 교통편의 향상·천일염 등 물류 증가

해남군 우수영에서 신안군 장산도·신의도를 최단거리로 연결하는 카페리 여객선이 취항한다. 해남군은 23일 해남군청 상황실에서 명현관 해남군수와 (유)신진해운 박금희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우수영-장산도-신의도 항로에 449톤급 카페리여객선 드림 아일랜드호 운항을 내용으로 하는 협약을 체결했다.

취항할 드림 아일랜드호는 여객정원 314명, 차량 37대를 선적할 수 있다. 26일부터 하루 3회 연중 운항할 계획이다.

항로가 개설되면 우수영에서 신의도까지 1시간 10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어, 기존 목포~신의 항로에 비해 1시간 가량이 단축된다. 또한 8월에는 신규 여객선을 추가로 투입해 40분 가량이 소요되는 우수영-장산도 구간을 별도 운항할 계획으로 섬지역 주민들의 교통편의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장산도와 신의도, 하의도는 전국 최대 천일염 생산지이자 김대중 전 대통령의 생가 등이 위치해 연중 관광객들이 붐비는 지역으로, 우수영항을 통한 소금 등 수산물 물동량 증가와 관광객 유입의 효과도 거둘 것으로 전망된다.

해남 우수영항은 인근 시군에서 접근이 원활하고, 무료 주차 공간이 넓어 차량 이용에 부담



이 없으며 서울, 목포, 순천, 부산 등 타지역으로 진출하기가 편리한 교통의 요지이다. 현재 제주도를 왕복하는 쾌속 여객선이 운항 중으로, 업무협약을 통해 해남군은 우수영항 터미널에 매표소 등을 설치하고 운항을 지원할 계획이다.

명현관 해남군수는 "우수영-장산도-신의도 간 여객선 취항은 우수영항 활성화의 중요한 계기로, 우수영 오일장과 관광지 등 지역경제에 긍정적인 발전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며 "우수영항이 서남부의 중심항이 될 수 있도록 여객선사와 긴밀히 협조해 차질없는 운항을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해남=기동취재본부

# 전라남도 미래를 이끌어갈 히든카드!

세계의 중심으로! 풍요로운 일자리로! 아름다운 미래 가치로!  
전남의 미래가 새롭게 펼쳐집니다!